



보내는 아쉬움과 다가오는 설렘

새해 시작의 호기로운은 찾아오고 아쉬움이 찬다. 일상 회복으로의 길이었기에 더욱 절실했는지 모른다. 남은 결실을 위해 마음을 다잡아본다. 다가올 새해에 이를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지 않겠는가. 희망을 품고 2024년을 고대한다. / 김명선 주무관

올해 마지막 회기 마무리...“도민께 감사”

제423회 임시회 폐회
도·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조례안 등 58건 의결

“희망찬 갑진년 새해 준비,
활기 돋도록 최선을 다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가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42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

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조 4767억원 대비 3.71%(2775억원) 감소한 7조1992억원 규모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6015억원 대비 3.97%(637억원) 감소한 1조5378억원 규모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거쳐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안 25건, 도지사 제출 의안 30

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을 포함한 61건의 의안이 접수, 회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총 58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김경학 의장은 “보건의료와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운수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와 경찰관, 소방관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준비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도민 삶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첫 임시회는 2월19일에 열린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연간 회기 일수는 127일,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등 11회로 예정됐다.

지면안내

3~4

의회 주요 이슈

5~6

상임위 주요활동

7~9

생생 의정 활동

12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제주 발전 위해 열정 쏟은 한 해”

제423회 임시회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2023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423회 임시회를 열어 “올 한해 살림살이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와 올해 세차례의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공동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책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으며, 특별자치시·도의회 간 지방분권 협력을 모색하는 의정박람회를 처음 개최한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우리 의회가 크게 관심을 기울인 것 중 하나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제주에 도입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과 충남 부여군을 방문하고, 몽골, 베트남과 인력교류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다”며 “지원 조례를, 마련해 도입 여건을 조성한 결과 지난 11월 첫 결실을 보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감귤 농장에 투입했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의장은 “앞으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다양한 작물로 확대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교류 지역을 보다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모두가 돌봄의 사각지대 없는 동

김경학 의장 개·폐회사서
올해 성과 및 아쉬움 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모두가 만족하는 만큼
규모 확대 나서야”

“경제는 어려웠지만
제주 유산 세계적 인정 받아”

“더불어 행복한 제주
만들어 갈 수 있길 소망”

등한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올해는 그토록 염원했던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개소했다.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와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곧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고용장려금, 고용의무제도 등 정책에 힘입어 기업에서 장애인 채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장애인 복지의 꽃이다. 도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5일 2023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를 통해 김경학 의

장은 “3년 만에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도민들은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어려웠으나 제주 유산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제주해녀어업이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됐고,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의장은 “일부에서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앙정부가 1회용컵 사용을 자율적 참여로 전환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며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4·3역사 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를 최종 의결했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11차례의 회기를 통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앞장섰으며,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가 도민의 삶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 열정을 쏟았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따뜻한 질책과 함



께 응원, 신뢰를 보내준 도민이 있어 의정활동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보건 의료와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운수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와 경찰관, 소방관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아쉬움은 훌훌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채울 시간이다.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왔듯이 새해에도 이웃의 손을 맞잡고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한다”며 “배려와 존중은 험난한 세상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장애물을 걷어내고, 끊어진 길을 이어나가며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올 한 해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

44명 의원 모두는 새해에도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산타가 된 의원들…“사랑 나눠요”



김경학 의장 및 의원 7일
사랑의 빵 나눔 행사 참여
빵·케이크 복지시설에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산타클로스로 변신,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일 김경학 의장과 김대진(더불어민주당, 동홍동)·김황국(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 부의장,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읍),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김승준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김창식 교육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적십자사 빵나눔터에서 ‘빵긱빵긱’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경학 의장 등 의원들은 제주적십자사가 운영 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빵과 케이크를 정성스레 만들었다.

이날 만든 빵과 케이크는 의원들이 도내 아동복지시설 4곳에 전달하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산타클로스를 자처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12대 전반기 의회는 ‘복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케이크와 빵을 간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면서 “어려운 이웃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주-상하이 미래 동반 성장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한동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원이 함께 했다.

대표단은 19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하이시위원회를 방문해 천천 부주석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날 면담에서 김경학 의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중국에서 만든 첫 대형 크루즈선이 상하이-제주-일본 노선으로 취항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제주와 상하이 간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양 지역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이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양 지역의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신산업분야에 대한 미래도 함께 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추후 양 기관이 격년제 방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대표단, 중국 방문
활발한 협력·교류 기대
제주포럼 초청 의사 전달

이와 함께 김경학 의장은 위원회 측에 내년 5월 예정된 제주포럼에 상하이시위원회 주석을 비롯한 관계자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천천 부주석은 “한·중 양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이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한국은 중국의 제3의 투자국으로써 무역과

관련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상하이도 제주와 IT,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경제협력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대표단은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하이시위원회 주관으로 상하이도시기획전시관, 상하이 천문관 등을 방문해 항공우주 개발에 대한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20일에는 G60 과학기술혁신회랑 및 광푸린문화유적공원 등을 방문해 상하이의 과학기술과 역사, 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법규 입법평가서 43건 조례 이행 점검

14일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총 43건의 조례에 대해 진행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 권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를 통해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와 함께하는 나눔 ‘훈훈’

15일 송년 나눔의 날 행사
의원·직원기증 바자회 열어

의정대상·유공자 표창 시상
화합·나눔 송년 음악회도

연말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이웃과의 나눔에 힘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을 주제로 송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도민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 진행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직원은 옷과 신발, 가방, 생활용품 등 1000여 점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으며 이날 바자회를 통해 판매됐다. 판매 수익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며 의회 가족 모두가 참여한 나눔 행사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은 금액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되듯이 개개인의 작은 나눔이지만 주변 이웃에게 큰 위로와 선물이 될 수 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도민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2023년 의정대상 및 의정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개최됐다.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입법활동부문 ▲최우수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우수 강동우(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갑)·한권(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이 선정됐다.

행정감사부문에는 ▲우수 강경문(국민의힘, 비례대표)·강상수(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책연구부문에는 ▲최우수 연구단체로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공동대표의원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현길호(더불어민



20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대상”



김기환



강동우



양영식



한권



강경문



강상수



강성의



박두화



현지홍



주당, 조천읍)), ▲우수 연구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문화 특화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의원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선정됐다. 의정활동 협력부문 유공자로는 강용신, 문경순, 부민호,

오윤정, 윤영숙, 이승환, 이연정, 이현철씨가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화합과 나눔을 주제로 한 송년 음악회도 펼쳐졌다.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운데누리장애인예술단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청년장애인 활동가로 구성된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별빛밴드, 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고익숙(교

육의원, 제주시 중부)·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의원과 문창배 정책연구위원이 함께하는 무대 공연이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도의회·도·도교육청으로 구성된 기타 동호회가 함께하는 하모니와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의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이 무대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청정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동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본관 앞마당에서 진행된 ‘청정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할인 행사’에 참여했다.

김경학 의장과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현기종(국민의힘, 성산읍) 의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수산물을 구매하는 등 청정 제주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청정 제주산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널리 홍보해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23회 임시회를 개최,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살림살이 정리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을 꼼꼼히 훑아봤다.

행정자치위원회



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수정 가결

“재단-집행부 소통 아쉬워”

재단 자율성·독립성 확보 명시

지난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을 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조례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재단과 집행부의 갈등 양상과 소통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4·3평화재단과 유족회, 제주도정 간 갈등 모습이 비춰지면서 도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쉽다.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관련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도지사 책무를 신설,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1000억원이 넘는 보통 교부세가 추가로 제주도로 교부됐지만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중앙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0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 리가 없다”면서 “지방재정 동향을 파악하지 못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도 “중앙정부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들어오는 세수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예산 양보 안돼”

화재 진압 개선책 요구 및

사회서비스원 정체성 강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사한 가운데 의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회의에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 이야기를 꺼내며 “안타까운 마음에 모두가 슬픔에 빠졌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매뉴얼 및 개선책 등 올바르게 만들어 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4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도민 대상으로 예산이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위 안전, 2위 환경, 3위 보건복지인 것으로 기억한다. 국세 결손에 따라 대응하는 건 좋지만,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양보해선 안 되는 예산이 안전, 보건, 복지라 생각한다. 너무 많이 감



액으로 들어왔다.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읍)은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되거나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들은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경미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지난달까지 예산 집행이 74%다. 26%가 불용이 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메카로 자리 잡는 중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위·수탁 시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영농폐기물 원활한 처리 필요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응책 사전에 준비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12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영농폐기물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품목을 확대하거나 집하장 설치 등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 “이번 조례안이 올라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비추어지거나 혹은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리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례를 통해서 자연의 보전과 생태계 가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주택사업 등 개발공사 공익적 사업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본연의 물 산업이 잘된다는 것을 전



제로 가져가야 한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상천리 광역폐기물소각장과 관련해 “인근 마을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행정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 같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11일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 구조 1순위 문화·예술, 참담”

카지노 관리·현장 감독 강화
집행 잔액 최소화 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가 지난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집행부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추경을 살펴보면 2775억원이 줄어들었다.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추경에서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의 예상치 못한 세입 결손이 심각하다”며 “세출 구조조정에서 1순위가 문화예술 분야인 것 같아 참담하다.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서부체육관의 경우 95억원을 삭감했었는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라며 “지방채는 빚이다.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문화체육관광국이 크루즈 관련 재정비와 위케이션 육성 등 유독 관광과 관련해 역점 사항을



됐다”면서 “문화, 체육 언급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승아 위원장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카지노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도정과 경찰, 업계 간 간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카지노 전담 부서가 폐지돼 관리 감독과 현장 점검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밖에도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국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와 ‘위케이션 인제주와 문화협력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4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교육위원회

“연구용역 부실, 정책 혼선 우려”

도교육청 정보정책 관련 예산 재편성 ‘유감’
경비절감 위한 조직 진단·업무 슬림화 필요

지난 12일 열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했던 연구용역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됐다.

이날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연구용역 결과들이 부실해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혼선을 주진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갈팡질팡하는 교육청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 용역 관련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맡겨도 되는 걸까 싶다. 그만큼 연구용역이 부실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기금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초등학교 태블릿PC·학교유무선망 예산 등을 되살린 것을 꼬집어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을 상당히 훼손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남근 의원은 “처음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교육 혁신, 공간 혁신, 친환경, 디지털 전환, 학교 복합 시설 등을 기본 요소로 쟁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사업은 기존에 있는 학교를 좀 더 새것으로 바꾸고 교실을 늘릴 뿐”이라며 “복합 시설은 김영수 도서관 이외엔 전무하다. 제주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은 “교육청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정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안다”면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등을 심사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민간 위탁 성과 평가 결과 보고 등을 청취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 계획서부터 꼼꼼히 짚어야”

해양수산물 낮은 집행률 질타
제주해녀 관련 후속조치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동)은 “해양수산물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 것 같다. 지난해보다도 더 낮다. 어업인 수당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50%밖에 안된다. 추계를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수당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준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집행 과정에서 꼼꼼하게 짚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주해녀의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이후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녀의 전당이 이와 연계해 건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달라”며 “내년에는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가 명실상부 해녀의 거점임을 알리기 위한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어 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이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민간 행사가 전액 감액됐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산 수립 및 계획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농작물 가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조례안 심사가 이어졌다.

도·도교육청 2회 추경안 예결위 통과

13~14일 예결위 회의 열려
세입 예측 능력 논란 여전
“마이너스 추경은 처음” 질타

학교 신설 관련 용역 ‘도마’
특별한 내용 없어…낭비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는 지난 13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가결했다.

제2회 추경안 규모는 7조1992억원으로 기존 7조4767억원보다 2775억원 줄어들었다. 일반회계는 5조9863억원으로 당초 6조2035억원과 비교해 2173억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1조2130억원으로 당초 1조2732억원보다 602억원 줄어들었다.

이날 안건은 통과됐지만, 세입 예측과 재정운용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올해 1회 추경 4100억원은 역대 네 번째 규모다. 2회 추경은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 추경으로 예측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도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70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예산 추계를 제대로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 역시 “마이너스 추경은 처음”이라고 질타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 도마에 올랐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12억원 규모의 관련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세입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 배분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나와야 하는데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안 규모는 1조5378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6015억원 보다 637억원 줄어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고등학교 신설 관련 연구 용역이 화두에 올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은 “예술고나 신제주권내 고교 신설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모두 한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구수행 주체가 다양할 수 없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 결과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돈은 돈대로 투입되는 상황에 우려가 생긴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어느 한 팀에만 맡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치매 환자 가정 돌봄 지원 강화돼야”

도의회 포용복지연구공동체
11일 정책 연구용역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포용복지연구공동체(대표의원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지난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족 돌봄을 중심으로 치매 환자 돌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의 돌봄 실태를 파악해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제주대학교 고관우 교수는 이날 발표회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지원 정책 확대와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가족 돌봄 욕구와 인프라를 고려한 가정 내 돌봄 체계 환경 구축 필요 △치매 환자 돌봄 가족의 부담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방안 필요 △치매 환자 가족 돌봄 공적지지 체계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 정책 개발 등의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경심 대표의원은 “치매는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자녀 등 가족 및 지역사회 모두에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지역의 치매 환자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형 자산 극대화하는 제주형 콘텐츠 필요”

도의회 체육발전연구회 20일
스포츠관광 전략 연구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체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홍인숙,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는 지난 2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스포츠관광 콘텐츠 도입을 위한 전략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의 연구책임자인 (사)한국스포츠CMS 서승호 대표는 이날 결과보고회를 통해 제주의 환경, 트렌드 변화, 제주도정의 당면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제주형 스포츠 관광 콘텐츠 도입 전략을 제시했다.

서승호 대표는 “제주 최대 강점인

관광산업과 스포츠 산업의 경계에 숨어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틈새 시장이 잠재적으로 존재함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제주 무형의 자산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제주형 스포츠 관광 콘텐츠 도입을 위한 단계별 전략 제시 △제주만의 블루오션 시장환경을 목표로 추진 단계별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홍인숙 대표의원은 “체육은 관광 못지 않게 제주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나 인프라, 콘텐츠 등의 부재로 아직 날개를 펴지 못했다”면서 “제주형 스포츠관광 콘텐츠 도입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마련돼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회용품 보증금제 후속 조치 강력 촉구”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전국 시행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2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지난 9월 지자체별로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2025년 예정되어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간병 민원 상담 창구 마련 필요”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15일
간병서비스 조사보고회 개최
시급성 높은 정책 수행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지난 15일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제언’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주지역 간병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간병인의 근무 형태 및 간병 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인식, 근무 만족도 및 어려움 등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정책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2차 분석을 시행했고, 간병인과 이용자에 대한 심층면접도 진행했다. 그 결과 간병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시급성 높은 정책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간병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정책 욕구’로는 △민원(분쟁) 상담 창구 마련 △산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지원 △근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간병인의 불안정한 고용 지위와 함께 간병인의 직무 범위 및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 조정 및 해결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홍 위원장은 “간병에 대해 이웃들의 경험담과 뉴스 등을 통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었지만, 정작 간병서비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갈증이 있었다”면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5인미만 소규모 사업체 노동 환경 개선 모색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11일
초청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지난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신승배 연구위원을 초청,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성별 노동실태 분석’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의 성별 노동실태를 분석,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본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전체 산업의 87.8%가 5인 미만 사업체이며, 특히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 31%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면서 “제주지역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의 최저임금 미충족 실태와 함께 전반적인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해양교육문화 강화해야”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기초 연구용역 최종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최종보고회에는 송창권 대표의원을 비롯한 양홍식 부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동우(교육의원, 제주시 동부)·하성용(더불어민주당, 안덕면)·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

추자면)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종현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 연구 용역을 통해 파악된 해양교육문화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종현 단장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해양교육 문화 사업이 해녀 관련 사업에 치중된 반면 해양레저사업은 제주가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주도는 해양교육문화에 대한 컨트롤타워와 비전이 없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해양교육과 관련해서도 “제

주미래교육비전 2030’과 ‘2023년 제주교육 세부추진계획’에도 해양교육에 대한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제주바다를 위한 해양교육문화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해양교육센터(원)건립 3개소

와 해양교육문화 지구지정 2개소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더불어 △해양교육문화협의체 구성 △해양교육문화활성화 5개년 지역계획 수립 △제주해양교육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내놓았다.



특례활용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 모색



제주교육발전연구회·미래제주 공동 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교섭단체 미래제주(원내대표 정이운,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는 지난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교육자치 현황과 발전 과제’ 주제의 제1차 제주교육자치포럼을 개최했다.

제주교육발전연구회와 미래제주 소속 의원, 전직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 제주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대학교 고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 자체에 대한 성과와 한계 등을 고찰했다. 또한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특별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실현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고의숙 대표의원은 “제주에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에 관해 타 시·도와는 다른 다양한 특례들이 규정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제주의 선도적인 교육자치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 하고자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이운 원내대표도 “지속적으로 교육자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그 결과를 도출해 의미 있는 교육 자치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화자 의원, 장애인정책 활동 ‘최우수’

우수 김정미·현지홍 의원 뽑혀 타상임위 강상수 의원 선정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펼친 최우수 의원으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선정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1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22~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주도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정활동을 분석한 이번 평가는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6명의 의정모니터단이 330개 회의록을 모두 살펴보는 전수조사와 함께 타 시·도 5명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해 발언 점수와 성격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의원으로 뽑힌 원화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투석병상수 부족 등 동·서부 읍면 지역의 의료인프라 향상을 촉구했고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주지역 내 필요한 장애인 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수렴한 발언을 주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의원으로는 김정미(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타상임위 우수의원으로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이 선정됐다.

김정미 의원은 폭 넓은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현지홍 의원은 특수교육 과밀 문제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등 행정에서 단호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판에 나섰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상수 의원의 경우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발언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김기환 의원, 제주산림환경대상 수상

환경·산림 가치 진흥 의정 활동 공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환경 및 산림 가치 진흥을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주산림환경대상 입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9일 제주라이온스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시상

식에서 김기환 부위원장은 입법활동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환 부위원장은 그동안 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한편 환경 및 산림 가치 진흥을 위한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기환 부위원장은 “도민들께서 산림환경을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산림의 환경 기능과 산림환경 보존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방안 모색, 산림 및 환경 교육 진흥을 위한 입법 활동, 산림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호형 의원, 한국수산회 공로패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지난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국가어업유산등재 축제’ 개최식에서 (사)한국수산회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수상했다.

박호형 의원은 제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와 앞선 11월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는 데 공을 인정받았다.

(사)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은 “앞으로도 전국의 해녀들이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한다.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모아 공로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박호형 의원은 “올해 전국 해녀와의 만남을 통해 해녀어업 및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한 절실함을 공감했다”면서 “내년에는 전국 해녀들이 참가하는 가칭 한반도 해녀 포럼을 발족해 전국 해녀의 삶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남겼다.



알고 계신가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1 잠깐 돌발퀴즈!

Q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중인 7급 ○○○ 주무관은 퇴근 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나요?

정답 △

A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관련근거 : 복무규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2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 영리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3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①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4 공무원의 겸직 허가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

- ①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미허가

신기한 제주어 ㉗

베르싸지다

(동사) 열리며 속이 드러나다

〈예문〉

‘나나’는 눈 트멍싸라 바깳덜 받 벳꽃이 곳 베르싸짐직 하여시난 “아까 꿈 소꿉이서 나 눈썹 고완 톤아사켄 곱아준 모모오라방이 열메 웃엉 전농로 동 녀팸이로 똑 움직히다” 혼자 중은중은하곡 빙색이 웃이멍 콧놀렐 혼다 “웨로 움도 웃단다 우리덜 꿈 소꿉에 ㄱb/ㄴ광나만이 꿈의 대화를 ㄱ.ㄱ yeah yeah yeah~~~”

- 트멍싸라 : 트자마자 곧 · 바깳덜 : 바깥을 · 곳 : 곧
- 베르싸짐직 : 벌어질 듯 · 하여시난 : 했으니까 · 톤다, 톤다, 톤다 : 손으로 조금 톤다 · 톤아사켄 : 뜯어야겠다고 · 곱아준 : 말해준
- 오라방 : 오라버니 · 열메웃엉 : 얼마 없어서 · 동녀팸이로 : 동쪽편으로
- 똑 : 꼭 · 움직히다 : 올 것 같다 · 혼자 : 혼자 · 중은중은하다 : 중얼중얼하다 · 빙색이 : 빙그레 · 웃이멍 : 웃으며 · 콧놀레 : 콧노래
- 웨로움 : 외로움 · 웃단다 : 없단다 · ㄴ광 : 너랑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11회	총127일 ·정례회 2회/39일 ·임시회 9회/88일	본회의 33일 상임위 49일 예결위 15일 공휴일 30일	
2월	제424회 임시회	2.19.(월) ~2.29.(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교육위원회 제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425회 임시회	3.19.(화) ~3.27.(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4월	제426회 임시회	4.15.(월) ~4.26.(금) (12일)	본회의 7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도정·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5월	제427회 임시회	5.14.(화) ~5.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공휴일 3일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6월	제428회 제1차 정례회	6.11.(화) ~6.26.(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7월	제429회 임시회	7.1.(월) ~7.3.(수) (3일)	본회의 3일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제430회 임시회	7.15.(월) ~7.19.(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9월	제431회 임시회	9.2.(월) ~9.13.(금) (12일)	본회의 7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도정·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0월	제432회 임시회	10.4.(금) ~10.24.(목) (2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2일 공휴일 7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33회 제2차 정례회	11.12.(화) ~12.4.(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6일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2월	제434회 임시회	12.10.(화) ~12.16.(월)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스포츠와 지역경제



정 민 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최근 제주지역의 화두는 ‘청년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던 중 지난 8월 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스포츠산업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스포츠는 지역의 관광 및 마이스산업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스포츠�관광, 전지훈련 특화시설 등을 통해 스포츠와 도시를 연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스포츠와 관광이 융복합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청은 지자체 체육진흥과 전지훈련팀 운영을 통해 연 4만명 방문으로 쇠락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주민만을 위한 대회로는 스포츠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선을 달리해 선수와 관계자, 학부모, 관람객 등이 함께 참여한다면 관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이벤트와 연관된 스포츠용품업, 시설업, 서비스업, 관

광숙박업과 음식업, 지역 상품 소비 등 지역경제와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다. 첫째 중소도시 간 스포츠 이벤트 유치경쟁과 비용의 상승이다. 제주자치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비(항공권)와 성수기 숙박시설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제주자치도의 2022년 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2015년 대비 40% 감소하였다.

한국스포츠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81.9%가 중소도시에서 개최됐으며, 2005년 대비 2015년 스포츠 이벤트(축구, 농구, 배구, 육상) 유치 비용은 86% 증가했다.

둘째, 무분별한 스포츠파크 건립이다. 전국 15개 스포츠파크 건립에 평균 면적 21만1714㎡, 평균 489

억원의 재원이 투입됐고, 새로운 시설들은 제주스포츠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 스포츠산업의 미래 전략 대응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보다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스포츠산업을 위해 미국의 IMG ACADEMY(초, 중, 고, 대학생 그리고 프로선수들을 위한 훈련 기관 유치), 전국 대학스포츠 축제를 동계에 개최해 동계전지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포츠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젊은이들이 제주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하며, 제주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때 인구소멸 문제 해결의 근원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미싱 문자 속지말자

문 우 정

제주시
교통행정과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미싱 문자를 잘못 눌렀다가 신분 및 예금내역 등에 관한 정보들이 유출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미 택배 알림이나 경조사를 알리는 형태의 스미싱 문자 피해는 물론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행정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문자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를 알리는 뉴스를 접했으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또는 ‘왜

저렇게 당할까’하고 그냥 넘겨 버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최근에도 불법 주정차에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니 확인하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제시하고 이를 클릭해 확인하게 하는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는 시민들의 문의가 있었다.

이는 일반 시민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문자 내용을 확인하도록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빼내고, 예금 인출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현재 제주시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www.jejudi.go.kr/parkingsms)에 가입한 경우에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만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는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가 없으니 함부로 클릭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스마트폰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앱인 ‘시티즌코난’을 설치해 활용하길 권한다.

탄소의 가격은 얼마일까

강 미 진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나타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기후 위기 피해 규모를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 1t을 배

출했을 때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51달러(약 6만원), 영국은 245파운드(약 38만원) 등 국가마다 다르게 계산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는 진행됐으나 공식 발표된 비용은 아직 없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에 어느 정도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기업에서는 고탄소 사업의 투자는 줄이고 저탄소 부문으로 사업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설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정량화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주도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7.26t(2018년 기준)으로 비용으로 산출하면 43만원(미국 기준) 정도 수준이다. 1인당 비용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높은 비용은 개인으로 하여금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운송 수단을 선택하도록 해 일상에 저탄소 생활방식이 녹아들 것이다. 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반대 급부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게끔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탄소의 적정 가격이 산정될 수 있길 바란다.



“다양한 음색이 하모니를 이뤄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의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의 화합과 상생의 하모니가 연말을 따뜻하게 채웠다. 11월에 창단한 합창단은 지난 11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지난 3일에는 KCTV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해 화합의 울림을 선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송년콘서트 무대에 올라 많은 호응을 끌어냈다. 합창단은 향후 사회복지시설 음악 봉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의정자문위원회 하반기 전체회의 열려

올해 활동 실적 공유
역할 강화 및 방향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3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원 및 7개 분과 의정자문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올해 활동 실적 공유와 내년도 의정자문위원회 역할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사단법인 제주마을진흥원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인 강사를 초청 ‘소통과 공감 스피치 기법’ 주제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김경학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도민 목소리들을 반영한 제안과 건의 사항은 의정 역량과 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이정표로 삼겠다”면서 “내년에도 의정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자문, 조언

을 기대하며 의회에서 더욱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 등 제시한 의견들이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내년에도 의정자문위원회가 의회와 도민들의 든든한 가교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많은 정책 제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원·직원 소통 역량 강화

7일 직무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교감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청’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의는 변영실 강사의 CS교육에 이어 김여진 전 YTN앵커의 스피치 교육, 김석주 공보관의 연설문 및 보도자료 작성법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 및 직원들은 “우리 구성원들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 기술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면서 “온라인 소통을 포함한 다양한 소통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우리 의회는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의회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운영한 2023년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 한 해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와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운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재개한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지난 6월9일 도내 4개 고등학교 학생 28명과 6개 중학교 학생 42명이 참여

한 가운데 실시됐다.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학생 31명과 지도교사 4명에게는 지난 8월2일부터 6일까지 일본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됐다.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의정체험은 지난 4월26일 수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18개팀(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3곳, 일반 단체 4곳, 탐라교육원 4곳), 506명이 참가하며 관심을 받았다.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는 물론 의원 역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청소년의회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